

광주-부산 '비엔날레 성공·민주정신 헌법수룩' 연대

문체부, 광주·서울·부산시와 미술축제 통합 개최...다음달 '미술주간'
강기정 시장, 부산서 간담회...5·18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룩 공동 목표

광주와 부산이 두 도시의 비엔날레 개최 성공과 헌법 전문(前文) 수룩을 위해 연대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16일 부산현대미술관의 특별무대에서 열린 2024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4 부산비엔날레는 오는 10월20일까지 부산현대미술관, 부산근현대역사관, 한성1918, 초량재 등지에서 열린다.

강 시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 오는 9월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홍보에도 나섰다.

강 시장은 "부산비엔날레와 광주비엔날레가 빛날 수 있도록 모두의 성공을 위해 뛰겠다"며 "본선시와 31개 국가·문화기관이 참여하는 파빌리온이 준비된 광주비엔날레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 광주시, 서울시, 부산시는 대한민국 미술축제 공동선언을 통해 주요 미술행사를 대한민국 미술축제로 통합해 성공 개최하기로 했다. 당시 강 시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만나 양 도시의 비엔날레 개막식 상호 방문, 공동 홍보 등을 약속했다.

올해는 9월1일부터 11일까지 '대한민국 미술축제 미술주간'을 운영하고 광주비엔날레, 부산비엔날레, 서울아트위크 등 주요 미술행사를 연계할 예정이다.

또 광주비엔날레와 부산비엔날레 입장권을 30% 할인한 통합 입장권도 판매한다.

강 시장은 이날 부산지역 민주화운동단체와 '부마-5·18정신 민주역사 계승연대를 위한 간담회'

를 열고 '헌법 전문 수룩'이라는 공동 목표를 세웠다.

간담회에서는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룩을 위한 상호협력 등 부마에서 오월로 이어지는 민주역사 계승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또 민주역사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부마, 광주의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현실에서 부마와 오월광주는 더 단단하고 굳건하게 연대해야 한다"며 "헌법 전문 수룩은 부마와 5·18 정신을 계승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이행봉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도 "그동안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룩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이번 간담회를 기점으로 영호남이 힘을 모으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시장은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역사를 새겨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기억하고 배우도록 해야 한다"며 "부마와 5·18이 시가지적 선수가 아닌 서로에게 힘이 된 역사적인 민주주의 운동의 분수령인 만큼 헌법 전문 수룩을 통해 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우자"고 화답했다.

광주시는 그동안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룩을 위해 여러 차례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또 대구 2·28민주운동, 6월민주항쟁, 제주4·3 등 민주 연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부산 사하구 부산현대미술관에서 열린 2024 부산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해 박형준 부산시장 등 내빈들과 전시작품을 보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폭염 극심한 곳에 그늘막 설치 확대

열 분포도·유동 인구 등 데이터 분석 최적 입지 선정

광주시에 계속되는 폭염에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그늘막 설치 확대에 나선다.

특히 지역별 열분포도와 유동 인구 현황 등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늘막 우선 설치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그늘막 설치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그늘막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지역 105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역별 열분포도'와 그늘막 설치 현황, 신호기·횡단보도 설치 현황, 지역별 폭염 취약계층(어린이·노인) 거주, 유동 인구 현황 등을 종합 분석했다.

그늘막 우선 설치 필요 지역은 100m 단위의 격자형 전자지도로 생성하고 격자 내 노인·어린이 거주인구와 유동 인구수, 지표면 온도 등을 지수화해 결정했다.

시는 그동안 그늘막 설치 위치는 자치구가 다중 이용 장소 위치, 그늘막 설치 요구 민원, 현장 여건 등을 바탕으로 결정해 왔다. 하지만, 이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그늘막 설치 위치를 선정함에 따라 지표면 온도와 폭염 취약계층 거주, 유동 인구까지 세밀하게 고려해 최적 입지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도출된 그늘막 설치 후보 지역 중 최종 설치 지역은 5개 자치구 담당자가 현장방문한

뒤 행정안전부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또 자치구와 함께 도로 살수 차량 노선을 폭염 취약계층 거주, 유동 인구지수, 온도 지수 등이 높은 지역 중심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광주지역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그늘막은 총 613개이며, 도로 살수 차량은 최대 16대로 하루 평균 400km를 운행하고 있다.

배일민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번 그늘막 설치 입지 데이터 분석은 폭염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합·교통·관광 등 시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을 지속 수행해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민 10만 가구에 탄소 감축 인센티브

지난해 에너지 사용량 전년보다 3% 줄어...금리 우대 등 혜택

지난해 전남지역 도민들이 2만 5829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따라 전남지역 15만2893가구가 지난해 2만 5829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특히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보다 3% 이상 감축,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지역민들도 9만 9663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가정, 상업 등에서 최근 2년간 월 평균 전기·상수도·도시가스 등 사용량에 견줘 감축한 실적을 분석,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범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으로, 환경부가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에 참여하면 NH농협은행에서 0.1%의 금리우대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산정되는 포인트로 현금이나 지역화폐, 중앙제분투 구입 등에서 인센티브(개인당 1년 최대

10만 원)를 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22년부터 에너지 사용량 3%~5% 미만 감축한 가구에 인센티브를 확대 지급하는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도는 그동안 가입자가 에너지 사용량을 5% 이상 감축했을 때만 국고보조사업(국비 50%, 시·군비 50%)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했었다.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9만9663가구가 14억230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전남도는 또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가구를 늘리기로 하고 올해 1만 7299가구가 새롭게 '전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가입자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규 가입자에게 5000포인트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코로나19 재유행에 고위험군 보호 총력

광주, 4주만에 입원 18배 증가...요양시설·치료제 수급 등 점검

광주지역 코로나19 입원환자가 4주 만에 18배 늘어나면서 광주시가 감염 취약 시설 내 집단 발생 예방과 고위험군 보호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5개소)의 8월 2주 차 코로나19 입원환자는 55명으로, 4주 전 7월 2주 차(3명)에 비해 18배 늘었다. 입원환자 중 65세 이상은

69.1%(38명)로 7월 4주 차부터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19-49세 16.3%(9명), 50-64세 12.7%(7명)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지난 16일 자치구 보건소, 감염병관리지원단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6주간 광주지역 코로나19 재

확산 추이를 공유하고 시·자치구별 감염병 대응 인력 등 체계 정,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전담 대응팀 재점검·관리 강화 방안 논의, 먹는 치료제 수급 관리 상황 점검 등을 논의했다.

광주시는 감염 취약 시설 집단 확진(10명 이상)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구축한 전담 대응팀(시·구 32개팀 92명)과 대응 절차를 재점검했다. 또 자치구별 감염병 관리 부서와 감염 취약 시설 담당 부서가 협력해 집단발생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등 상황별 '코로나19 감염예방 수칙'을 지속해 홍보하기로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군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도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